

‘수수료 인하’ 전방위 압박에도 여신협 ‘나몰라라’... 카드사 불만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수익성 악화 “협회, 무엇 하고있는지 의문” 불만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논의가 시작됐지만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할 협회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 등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의무수납제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은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불만이다. 그마저도 기댈 곳은 협회뿐이지만 협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가계대출 총량규제, 법정최고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각각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했다. 적용 수수료

율도 각각 1.3%에서 0.8%, 2%에서 1.3%로 낮췄다.

가계대출 총량 최고금리는 지난 2월부터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운용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회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카드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2분기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나 감소했고, 하나카드도 31.2% 줄었다. 국민·우리카드도 순이익이 9% 가량 늘었는데 국민행복기금 사후정산금 등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결제수수료가 0원인 ‘서울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의무수납제 폐지까지 현실화되면서 카드사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를 대변해야 하는 여신협회가 각종 규제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카드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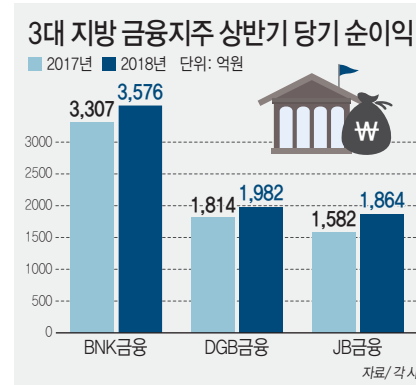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 당장 하반기 실적이 걱정되지만 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권과 당국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카드사에 없는 살림을 빼앗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김덕수 회장과 회동은 있었지만 협회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해 답답할 따름이다”며 “협회가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의무수납제 폐지, 서울페이 등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지방 금융지주, 악재 뚫고 ‘호실적’

3대 지방금융지주 평균 11% 성장
이자이익 증가·건전성 개선 등 견인



지역경제 악화, 부당금리 논란 등 일단 악재에도 올해 상반기에 지방 금융지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 금융지주가 작년 대비 평균 동기순이익 성장률이 약 11%를 웃도는 성적을 내었다. 특히 이자 이익의 고른 증가와 비효율성 관리, 자산건전성 개선이 실적 상승세 견인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357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9% 늘어난 1조1689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26.2% 증가한 1103억원으로 핵심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각각 2482억원, 108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DGB금융그룹도 2분기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보이며, 상반기 그룹 연결기준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한 1982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시장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6904억원을 시현했으며 지속적인 자산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총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6% 감소한 61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NIM과 대출 성장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IM은 전분기 대비 2bp 하락했고, 2분기 대출 성장률도 0%에 가까웠다.

JB금융지주는 2013년 지주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반기 실적을 일궈냈다. JB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1864억원의 상반기 연결 누적순이익을 달성했다. 특히 전북은행의 활약이 돋보였다. 전북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한 상반기 562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광주은행은 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디지털 코어뱅크로... ‘셀프뱅킹’ 도입 속도”

기업은행 창립 57주년

주40시간 등 업무방식 변화해야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 선도도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5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디지털 코어(CORE)뱅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김 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창립 57주년 기념사를 통해 “과거의 태도와 방식에 의존하는 ‘경로의 존성’에서 벗어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디지털 코어(CORE) 뱅크로 전환해 시스템 변화와 기술 도입을 넘어 전례 없는 변화와 깊이를 각오한 ‘완전한 변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코어에서 ‘코어’는 CO(Together·함께)·RE(Do again·다시 한다)는 기업은행장이 만든 합성어다.

이날 김 행장은 코어뱅크 전환과 함께 ▲주40시간 근무제 정착 ▲글로벌 금융영토 확장 ▲혁신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반자 금융’ 실현 등을 강조

했다.

김 행장은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고객별 디지털 경로를 세심히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한 점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때”라며 “스마트뱅킹과 온라인 브랜치, 고객 스스로 청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셀프뱅킹’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디지털코어 뱅크에 다가서

기 위해 은행원들의 업무방식의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나서 하는 회의를 화상 회의로 바꾸고, 오랫동안 손에 익은 서류철과 수첩 대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행장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다가오는 만큼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없애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남북 경협(경제협력)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51%가 기업은행의 주거래 기업이다. 북한에 새로운 새벽을 열어야 한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시스템, 금융소비자 보호, 현장중심 경영 강화 등을 강조하고, 민간과 정부 등과 새롭게 구축하는 일자리 허브 플랫폼인 ‘아이원 잡’을 통해 2020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전달했다. /유재희 기자

금융꿀팁 200선

가정주부 A씨는 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정기에 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고 2시간 쯤 지나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나 이체한 돈은 모두 인출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하면 좋은 무료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이 밝힌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는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사고 예방시스템 등이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를 할때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취소가 가능하다. 이체의 실행을 지연하면서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모님, 거래처 등을 사전등록하거나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을 이체한다면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활용하면

- 1 지연이체서비스
-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3 단말기 지정서비스
- 4 해외IP차단서비스
- 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송금만 가능하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하지 않은 PC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외IP차단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이 사실을 등록하면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등록하면 된다. /사유리 기자 yul115@

신한카드 ‘겨울왕국 특별전’ 입장권 단독할인

신한카드가 한여름 무더위를 달래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1’ 이벤트와 ‘안녕! 겨울왕국 특별전(Hello! FROZEN)’ 입장권 단독 할인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1 이벤트는 부산지역 신한카드 고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8월 25일 부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린 예정인 이 뮤지컬은 신한카드로 예매시 티켓을 한 장 더

증정한다.

이어 이달말까지 ‘안녕! 겨울왕국 특별전’의 입장권 구매시 15% 할인도 제공한다. ‘안녕! 겨울왕국 특별전’은 경기도 일산 ‘안녕! 겨울왕국’ 특설돔에서 11월 18일까지 열리는 전시 행사다. 겨울왕국 영화 속 모든 캐릭터를 실제 크기로 전시하고 영화배경들을 재현해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연인, 친구, 그리



고 자녀들과 함께 한여름 무더위를 달랠 수 있는 문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별해 신한카드 고객을 위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우리은행

유학생 송금 우대환율 적용

우리은행은 다음달 14일까지 해외유학과 국외연수 관련 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일석이조 유학생 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에서 유학 및 연수 관련 송금을 보내는 경우 주

요 통화(USD, JPY, EUR)는 80%, 기타 통화는 50% 우대 환율을 적용받는다. 전신료(8000원)는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을 해외체재비를 송금하는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송금하는 고객의 경우 LG코드제로 청소기(1명)와 다이슨선풍기(2명),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5명)을 받을 수 있는 경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사유리 기자